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통합심의) 2026년 5월 13일(수) 13:30 ~ 16: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동일, 김주연, 박정석, 신예슬, 임주섭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는 창작오페라로서의 매력과 가능성을 지닌 대본을 발굴, 지원하여, 동시대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갖춘 극작가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수한 창작오페라 작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총 29편의 작품이 대상에 올랐으며, 지원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로 극작·연출·작곡·평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대본과 시놉시스를 개별 검토한 뒤, 2차로 전체 심의위원이 참석한 대면 통합 심의를 통해 각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대본은 극작과 음악, 양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장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점에 합의하여, 대본 자체가 지닌 주제의 참신함과 완성도뿐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음악과 함께 공연될 때의 예술적 시너지와 미학성을 고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평가는 작품성(80%)과 무대화 가능성(20%)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품성 평가에서는 동시대성적 시선이 돋보이는 참신한 소재나 아이디어, 기존 작품들과 구별되는 독창성의 유무, 대본과 음악의 조화로운 결합과 극적 구성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무대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실제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무대 구현의 적합성, 음악적 운용을 고려한 대사 구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적 기획과 성부 배분, 장면을 음악적으로 전개하려는 고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스토리나 인물 설정, 혹은 대사의 문학성에 다소 약한 지점이 있더라도 음악적으로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에는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여 힘을 실어주었고, 반대로 극적인 소재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었더라도 음악적 고려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창작오페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작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독백에 가까운 구성, 한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대사량 등 오페라라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점들도 발견되어서, 앞으로 작가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9편의 심의 대상작 가운데 5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원작들은 일상생활과 AI, 다문화가정 등 동시대의 단면을 다룬 작품, 역사적 인물과 사건 및 특정 시대를 새롭게 조명한 작품, 전설과 신화, 동화에서 소재를 차용해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린 작품, 청각적 요소를 개념적으로 무대화한 작품 등 소재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적 시대와 인물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기존의 관점을 답습하거나 소재로만 활용하는 데 그친 작품보다는 그 시대와 인물을 참신한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고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작품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제 면에서는 관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 이야기 자체로 흥미로운 매력을 갖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형식 면에서는 이후 오페라로 공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악적 고려와 성부 배분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작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음악적 기획이 탄탄하고, 주제 의식 면에서 참신함과 보편적인 공감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극적 소재를 음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극적 구성, 캐릭터와 성부의 조화로움, 대사의 리듬감과 명료한 의미 전달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작품이 지닌 이야기의 규모와 소재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이즈의 공연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 작가들이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오페라의 소재를 탐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오페라가 우리 시대의 정신과 정서를 대사와 선율에 담은 종합 무대 작품으로 계속해서 창작되고, 나아가 더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르로서 꾸준히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창작오페라 대본은 문학과 음악 양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대중적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납득시키고 매력시켜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이 어려운 장르에 도전한 모든 지원자분들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